

# 백 마디 구호보다 한가지 실천을



재단이사장 이 강 희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생활속에서 자기 혼자만 건강히, 그리고 자기 혼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맘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편하지만, 그것이 남에게는 더 없는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남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는 서로

지켜야할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규범이나 규칙을 두게 마련입니다. 이 생활 규범을 지켜 사회 생활이 원만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사회 생활이 불편하게 되면 전체의 질서는 파괴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주장과 내 이익도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생활에 있어서 전체를 위한 질서는 바로 개개인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그러나 능률을 올리기 위해 서로의 경쟁을 부채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너와 나의 공존 공영하는 의식보다 남이야 어찌 됐던 나 혼자만이 즐겁고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 사상이 팽배하게 된 점과 그리고 질서 의식의 결여, 도덕심의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지켜야할 일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하여 여러 가지 강제적인 규범과 규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계화로 향하는 문화 시민으로서 타율적으로 강제성이 가해

져야만 규칙과 규범을 비로소 지키게 된다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은 그 나라 국민들의 질서 의식과 공중 도덕을 잘 지키느냐 못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바람직한 질서와 윤리의 미덕을 정착 시키도록 비상한 노력이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식과 양심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이며, 그 도덕에 바탕을 두고 사회 생활을 해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이 공중 도덕이라 하겠는데, 규칙과 규범이 강제성을 띠고 개입하기 이전에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명랑하고 평화로운 사회 생활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 나가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가정과 학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질서 의식과 공중 도덕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문화인도 세계인도 아

닌 것입니다. 구호보다는 실천에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금년은 병자년 쥐띠 해입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노력하는 쥐와 같이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온갖 정성을 다 하여야하며, 구호보다는 실천 역행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세계화와 자신의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 하겠습니까.

자, 인강인 여러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백마디 구호보다 한 가지 실천에 정성을 다하도록 합시다.

“

인간이라면

누구나 양식과 양심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